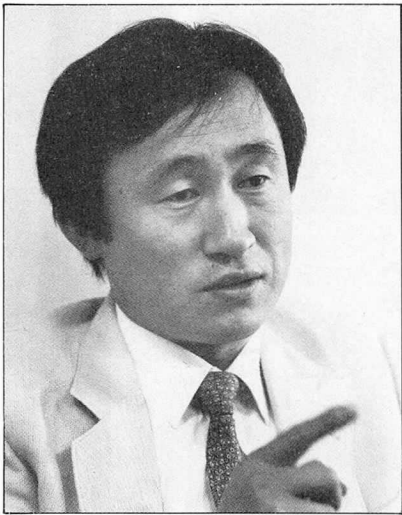


동양적 체취로 일본작단에 어필

講談社 출판문화상 받은 일러스트레이터 康禹鉉씨



"말만 앞세우기보다는 작품으로 보여주는 일러스트레이터가 되겠다"고 말하는 강우현씨.

일러스트레이터 康禹鉉씨(36)가 일본의 우수출판사 講談社가 주최하는 제20회 출판문화상 그림책부문상을 수상했다.

수상도서는 지난해 8월 역시 講談社를 통해 출판된 「사막의 공룡」, 사막에 깊이 파묻혀 수천년 동안 잠자고 있던 공룡이 어느날 사막의 대상들이 싸우는 소리에 깨어나 사람들을 잡아먹고 마침내는 자신도 죽어간다는 다소 이채로운 내용을 담고 있는데, 시원스런 화면 구성과 세련된 색감, 그리고 한지를 이용한 섬세한 번짐효과가 독특한 그림책이다. 글은 일본의 동화작가인 田島伸二씨가 썼다. 강우현씨는 이 그림책에 실린 일러스트레이션으로 이미 1987년에 '노마 어린이그림책 일러스트레이션 콩쿠르'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외국인으로는 첫 수상자

출판문화상은 講談社 창업 60주년을 기념하여 1970년에 제정된 상으로 그림책상 이외도 일러스트레이션상, 사진상, 복디자인상, 과학출판상 등이 있다. 비록 講談社가 주최하기는 하지만 「사막의 공룡」이 두번째 수상도서일만큼 엄정중립성을 자랑하고 있으며, 외국인로서는 강우현씨가 첫 수상자로 영광을 안았다.

작가 자신도 출판문화상 수상을 '노마콩쿠르 대상'에 이은 당연한 코스로 어렵직작하고 있었던지, 수상소감을 묻는 다소 의례적인 질문에 "특별한 소감은 없다"고 말한다. 그저 하루빨리 언론의 관심으로부터 해방돼 차분히 작업에 몰두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다는 듯한 반응이다.

"다소 건방진 말같기도 하지만, 일본의 일러

스트게는 지금 매너리즘에 빠져 있어요. 미국과 유럽화풍의 강한 영향이 계속되어오면서 일본적인 활기를 잃고 있는 것이지요. 동양적인 체취를 담은 제 작품이 일본에서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었던 데에는 아마도 시기적으로 맞아떨어졌다는 점도 작용했을 겁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는 수상을 예감하고 있었지요."

자신에게 있어 「사막의 공룡」은 이미 지난간 일이므로 빨리 잊고 새로운 작업에만 전력투구하고 싶다는 말에서, 일에 대한 그의 욕심과 강한 추진력이 느껴진다.

강우현씨가 현재 몰두하고 있는 작업은, 講談社를 통해 출판될 그림책 「원숭이 이야기」와 「거북이 이야기」, 그리고 한국·중국·일본 3국의 합작으로 선보일 야심작 「팬더 이야기」 시리즈이다.

"사람들이 왜 동물만 그리냐고 농담 삼아 물어보더군요. 공룡·원숭이·거북이·팬더로 이어지게 됐으니 그럴만도 하지요. 스케치를 위해 공룡만 빼놓고 동물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는데, 일본 북쪽에 있는 나가노라는 고장의 노천온천지역 지옥끝까지 찾아가, 4백여 마리의 야생원숭이들이 눈을 맞으며 온천을 즐기는 모습을 많이 스케치했어요. 일본에서도 일러스트만을 위해 현지까지 여행가는 일은 드물다고 하는데, 그 덕분에 이번에는 정말 살아 있는 작품이 나올 것 같은 느낌입니다."

「원숭이 이야기」는 일단 7월경이면 끝날 예정이며, 출판사와의 마무리 협의를 위해 일본에 가는 길에 아예 중국까지 들러 그곳 작가인 唐亞明씨와 팬더시리즈의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하고 돌아올 계획이다.

한·중·일 합작의 그림책 출간계획도

중국인 작가가 글을 쓰고, 한국인이 그림을 그리며, 일본인이 책으로 만들기는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처음있는 일.

"지난해 출판협회 초청으로 세미나차 방한했던 아동문학가 마쓰이씨를 통해 唐亞明씨를 소개받게 됐어요. 제가 일본에 체류하는 동안 서로 옆집에 살면서 친하게 지냈는데, 비록 각자 속한 체제는 다르지만 친구로서의 우정을 나누게 됐지요. 그래서 함께 힘을 합쳐 책을 만들어보자고까지 이야기가 발전된 겁니다."

「팬더 이야기」는 1·2차에 걸쳐 모두 6권이 나올 예정이며 90년 北京아시안게임에 맞추어 한·중·일 3국에서 동시발간될 계획으로



89년 강담사 출판문화상 수상작인 「사막의 공룡」 중에서

있다.

강우현씨가 일러스트를 그리며 가장 중시하는 것은 우선 컨셉트이며, 작품을 보게 될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점도 중요하게 고려한다. 「사막의 공룡」처럼 그의 작품은 어린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광범한 연령층에 어필하는데, 누구나 이해가능한 보편성을 중시한다고 강우현씨는 밝힌다. 이쯤되면 그림책이라고 해서 어린이들만을 위한 것일 필요는 없고 어른들도 한권쯤 서가에 꽂아두고 싶게 될 것 같다.

「일러스트에 대한 인식 새롭게 해야」

강우현씨가 일본출판계와 관계를 맺게 된 것은 지난 85년 동경에 있는 유네스코 아시아 센터 출판인 연수에 참여하면서부터.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양국 출판계에서의 일러스트의 위치에 대해 보고 느낀 점을 묻는 질문에 대해선, 지금까지 자신의 작품세계를 설명하며 보여줬던 자신감과 달리 다소 조심스럽게 말문을 연다.

"일본에서는 백화점을 비롯한 각종 기업체 등에서 아동고객들을 위해 그림책을 펴내는 경우가 많더군요. 우리나라 같으면 대기업의 출판계 침투니 해서 말들이 많겠지만 아동문학에 대한 기업체들의 관심은 어쨌거나 무척 부러웠습니다. 출판에서 일러스트가 차지하는 비중도 일본에 비해 우리나라가 떨어져 있다는 점은 엄연한 사실이지요. 일러스트가 편집의 부수적인 업무로 취급받고 있는 현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보다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그런가하면 인쇄를 포함한 여러가지 제작기술이 발전해야만 수준높은 그림책들이 많이 출간될 수 있다는 점도 그는 빼놓지 않는다.

"후배 일러스트레이터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로 조언하기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겠다"고 강우현씨는 말하며, 일본출판계와 중국 진출과정에서 얻었던 자신의 경험을 후배들에게 전해줌으로써 보다 발전해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싶다고 털어 놓기도.

그는 지난해 10월 발족한 한국출판미술가협회(회장 金榮注)의 정관작성과정에서부터 깊숙히 간여하며 산파와 다름없는 역할을 맡았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작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동의 목소리를 갖게 됐다는 점에서 출판가를 일순 긴장시킨 감도 없지 않은데, 일방적인 이익단체로서보다는 출판사와의 제휴 및 공존을 도모하는 창구로서 출판미협의 존재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강우현씨는 말한다. "너무 나서면 좋지 않는데..."라고 다소 꺼려하면서도, 출판미협 주관으로 올해 안에 작품료 조사 및 저작권 계몽, 국제교류 등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익대 미대와 대학원에서 그래픽 디자인을 공부했으며 경희대 경영대학원에서 노사관계를 전공하기도 했던 강우현씨는, 1980년부터 일러스트계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어 제일은행, 여수에너지 홍보과 등을 거쳐 현재 프리랜서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오애리 기자